

연구논문

##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

Koreans' Views of Life and Death: Results from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Survey

박재현\*\* · 김석호\*\*\* · 이민이\*\*\*\* · 심은정\*\*\*\*\* · 정혜주\*\*\*\*\*

Jae Hyun Park · Seokho Kim · Min-Ah Lee · Eun-Jung Sim · Haejoo Chung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사생관의 주요 차원들인 내세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지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며, 사생관의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된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내세지향성과 죽음관여도가 높았다. 둘째, 연령은 현세회귀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지 등 내세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사생관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은 낮아지는 반면,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지는 높아진다. 셋째, 한국인의 사생관의 형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낮았다. 내세지향성과 관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내세지향성을 보였다.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세지향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높은 죽음불안 수준도 가지고 있었다. 넷째,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는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지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행복하다고 자주 느끼고 풍부한 사회적 연결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살의 위협에 덜 노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향후 죽음이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올바르게 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2-B00009).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조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김석호.  
E-mail: seokhok@skku.edu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해하기 위해서는 사생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타당화된 도구의 개발을 통해 사생관 차원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사생관, 죽음, 자살, 내세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인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Koreans' views on the life and death and to illumin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ir subscales. The subscales are composed of afterlife views, death anxiety, death concern, will of suicide inhibition. Data drawn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collected in 2009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favorable attitude towards after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favorable attitude towards returning to this life.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s returning to the present 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ath anxiety while it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will of suicide inhibition.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s after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ath concern and will of suicide inhibi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have negative impact on death concern while the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ill of suicide inhibi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ll subscales of views on life and death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mselves and are also correlated with socio-demographic factors, which means that we have to comprehensively look inside the views on the life and dea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creasing suicide among Koreans. Further studies need approaching Koreans' views on the life and death by using more validated tools to capture their holistics picture.

**key words:** views of life and death, death, suicide, afterlife views, death anxiety, death concern, will of suicide inhibition

## I. 서론

최근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OECD 2009). 이러한 자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지만 개인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사회심리적 현상을 접근하여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우울증상,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안준희·전미애 2009)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적 지지나 가족관계요인(박재연 2009; 정병은·이기홍 2010; 최인 외 2009)이 갖는 효과 등을 보여주는 등 어느 정도 자살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삶과 죽음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많은 제한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회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즉 사생관(死生觀)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사생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AIDS, 자살, 안락사,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등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Feifel 1990),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기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낸 바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한성열 2004;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5).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한계가 있고, 표본 선정방법에서도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 결과를 한국 국민의 사생관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사생관 차이를 밝힌 연구(임순록 2008; 임순록 2009), 한국 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사생관을 고찰한 연구(박영호 외 1997), 장례식 소재 영화 분석을 통한 일본과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신광철 2006) 등이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라기보다 기존 문헌이나 역사적 사실, 대중매체 분석을 통한 철학적 고찰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생관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만성적인 불쾌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죽음불안, 죽음에 대한 동기적 거리를 나타내는 죽음관여도, 마지막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인 자살과 관련성이 있는 자살억제의지의 4가지 차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원래 사생관은 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된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이 연구는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제시한 4가지 사생관의 차원을 일부 차용해 분석하고 있다. 즉, 사생관을 인지적 측면에서 파악한 사생관, 정서적 측면에서 파악한 죽음불안, 동기적 요인에서 파악한 죽음관여도, 의지적 요인에서 파악한 자살억제의지를 고찰하고 각 차원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생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종교,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관계 등의 변수들 활용해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사생관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차원

사생관은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의미는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삶이 배제된 수동적인 의미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한성열 2004).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태련(1988)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 사생관은 어느 한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사생관 내지 죽음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사생관은 역사적 및 문화적 전통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인에 맞는 사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생관을 인지적 요인으로서 형성된 내세관과 죽음의 의미, 정서적 요인으로 죽음불안, 동기적 요인으로 죽음관여도, 의지적 요인으로 생명존중의지로 구성하고 이들 구성요소의 역동적인 체계이자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의 연구에서 드러난 인지적 차원에서의 사생관, 즉 내세관을 먼저 살펴보자. 한국인의 내세관은 내세신앙, 이상세계, 윤회사상, 영혼의 영향,

인과응보론, 조상의 영향 등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술해 보면,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내세신앙’(金兒 1996; 丹下 1999; Cicirelli 1998; Osarchuk & Tatz 1973),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 또는 불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상세계’(金兒 1994, 1996; 河野 1998; Spika et al. 1997; Wong et al. 1994), 사람은 죽어도 환생하는 것이며 생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비로소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윤회사상’(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金兒 1996; 今井 1989; Thalbourne 1996),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과응보론’(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양화를 일으키거나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견해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영혼의 영향’(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池口 1998; 金兒 1997; 丹下 1999), 조상들의 죄나 공덕 또는 묘자리에 따라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상의 영향’(박종한 1979; 최길성 1986)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6가지 차원들이 현세회귀성(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가와 조상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과 내세지향성(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와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사생관의 차원 중 하나인 죽음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안’은 미지의 명료하지 않은, 갈등을 내포한 내적인 위협에 대한 만성적인 불쾌한 반응(Kaplan et al. 2007)로 정의할 수 있다. 죽음불안은 죽음과 관련된 어떤 측면에 대한 막상이나 예기로 인한 걱정과 불쾌한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 한성열 2004). 죽음불안은 누구의 죽음이냐에 따라 자신의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나눌 수 있고,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냐 또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냐에 따라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라는 4가지 차원으로 나뉜다(Collett & Lester 1996).

동기적 측면에서 사생관을 바라볼 때 중요시되는 차원인 죽음관여도에 대해서는 권혜진(1980)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를 죽음 인지도로 개념화한 바가 있으며, 단계(丹

下 1995)는 죽음에 대한 사색경험의 깊이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빈도를, 깊이와 빈도라는 속성을 가진 사색성(思索性)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Wong et al. (1994)는 ‘죽음 회피’라는 차원으로, 가네코(金兒 1996)는 ‘무관심과 도피’라는 차원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차용한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사생관 측정 도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으로 죽음관여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억제의지는 이론적으로 Baumeister(1990)이 심리학과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서의 자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자살에 대한 인과적 모델에서 비롯됐다. 그의 자살에 관한 탈출이론(the escape theory of suicide)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은 (1) 높은 기준 내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2) 괴리에 대한 내부 귀인, (3) 자기지각(self-awareness)의 고조와 부정적 자기평가, (4) 부정적 정서, (5) 인지적 와해(cognitive deconstruction), (6) 자살억제의 감소라는 6단계를 거쳐 당면하는 생활 문제와 자기의 내포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소원이 점증되어 그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이러한 탈출이론에 입각하여 사생관의 인지적 측면인 죽음의 의미와 내세관이 자살억제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 2.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

현재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한 연구는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는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었고, 표본 선정방법에서도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어 한국인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생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는 지금까지 문학적, 철학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던 한국인의 사생관 연구와는 구별되는 한국인의 사생관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대학생들의 사생관의 특성 및 각 사생관을 구성하는 차원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은 크게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이라는 차원으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즉 무속, 불교, 풍수지리, 유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영향’, ‘윤회사상’, ‘조상의 영향’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내세관으로 융합되어 현세회

귀성이라는 차원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강조하는 ‘내세신앙’, ‘이상세계’, ‘인과응보론’과 같은 요소들은 사후세계를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계로 간주하는 내세지향성의 차원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서 현세회귀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상호 독립적인 차원이며, 현세회귀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세지향성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세지향성은 높지 않으면서 현세회귀성만이 높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 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조작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 III. 자료 및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이다. KGSS는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을 추출하며, 현지조사는 대면면접(person to person)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http://src.skku.edu>)가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계량적 원자료 생산을 확대·촉진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사업으로, 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산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 설계된 것이다. 본 연구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포함한 약 70여개의 변수들을 2009년 KGSS에 특별주제모듈로 조사하였다. KGSS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분석결과를 18세 이상의 한국인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KGSS는 조사

설계, 조사표 작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모든 조사 단계들에서 사회조사방법론의 원칙을 철저히 엄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최근 사회적 및 학술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자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것들 중 하나이다(이기재 외 2006; 이해용·이인경 2010).

## 2. 변수측정

### 1) 사생관 척도

사생관 척도는 앞서 고찰하였던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사생관 척도에서 문항을 일부 차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생관을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지)의 하부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기입식 설문을 만들어 이를 타당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생관의 여러 차원에서 내세관(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를 선택하였다. 또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또한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타당화한 각 차원별 설문문항들 중 하나씩의 설문문항만을 선별하였는데, 이때 설문문항 선택 시 요인분석에서 구조 계수값이 높으면서 해당 차원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현세회귀성은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된다고 믿는다’, 내세지향성은 ‘나는 죽으면 더 좋은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는다’로, 죽음

---

1) KGSSsms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절차는 먼저, 전국 광역도시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블록 수를 배분하고, 배분한 수에 따라 동·읍·면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현지조사는 최종 표집단위인 통·반이 정해지면 조사원이 표집된 통·반에 해당하는 번지를 동사무소에서 알아내고, 그 곳에 가서 가구 표집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사원에 의해 작성된 가구 표집틀에서 다시 12~13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표집된 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된 가구원 중 태어난 해에 관계없이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이 최종 면접 대상자가 된다. 조사원은 최초 선정된 면접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때까지 해당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응답자 대체는 금지되었다. 조사 시작일은 2008년 6월 29일이고 8월 말까지 조사원에 의해 방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2009년 KGSS의 표본에는 18세 이상 93세까지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무응답을 제외하고 난 후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89세임을 밝힌다.



불안은 ‘나는 죽음에 대해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로, 죽음관여도는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자살억제지지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겠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사생관 척도는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종분석에서는 죽음불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근로상태, 종교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만나이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성별은 더미변수화(여성=1)하여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 연수가 사용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수입은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sup>2)</sup> 결혼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로 측정하여 분석시에는 기혼 혹은 동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종교 없음으로 구성하였다. 근로상태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와 35시간 이하 근무자, 그리고 무직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니지만 사생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수’로 ‘0명(0)’부터 ‘100명 이상(7)’의 값을 갖는 변수로 측정하였다. 행복감은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1점)부터 ‘매우 불행’(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분석에서 역코딩되어 사용되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표를 제시하였다. 그런 후에, 교차분석과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각 사생관 항목의 성별, 연령, 종교별 차이가 제시되었다.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각 사생관 항목이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통제된 상태

2) 기술통계표에서는 가구수입을 4분위수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최종분석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해 연속변수로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에서 각 항목별로 네 개의 모형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선행연구에서 사생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진 성별과 연령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종교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에 행복감이 더해져 구성되었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세 번째 모형에 사회적 관계가 추가되었다. 즉 네 번째 모형에서는 통제변수,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 사회적 관계 모두의 효과가 분석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내세관 척도 사이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각 내세관 척도에 대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응답자 중 여성은 51.9%이며, 남성은 48.1%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49세가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이 가장 적다. 교육수준은 범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종교는 ‘종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4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불교 24.8%와 개신교 23.8%의 순으로 많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가 29.4%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20.6%로 가장 적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변수		N	%
성 별	여 성	830	51.91
	남 성	769	48.09
	계	1,599	100
연 령	18~34세	471	29.57
	35~49세	627	39.36
	50~64세	315	19.77
	65세 이상	180	11.3
	계	1,593	100

<표 1>

(계속)

변 수		N	%
교육수준	고졸 미만	347	21.71
	고 졸	453	28.35
	전문대졸/대재, 중퇴	366	22.9
	대졸 이상	432	27.03
	계	1,598	100
혼인상태	기 혼	1,067	66.73
	사 별	105	6.57
	이 혼	48	3
	별 거	6	0.38
	미 혼	370	23.14
	동 거	3	0.19
	계	1,599	100
근로상태	무 직	635	40.01
	35시간 이하	163	10.27
	36시간 이상	789	49.72
	계	1,587	100
종 교	불 교	397	24.83
	개신교	381	23.83
	천주교	151	9.44
	종교 없음	658	41.15
	기 타	12	0.75
	계	1,599	100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56	29.4
	201만원~320만원	329	21.21
	321만원~500만원	446	28.76
	500만원 이상	320	20.63
	계	1,551	100

## 2. 한국인의 사생관

### 1) 사생관의 각 차원간 상관관계

<표 2>는 사생관의 각 차원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같은 내세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던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현세회귀성이 높

〈표 2〉 사생관 차원간의 상관관계, Spearman 상관계수

	현세회귀성	내세지향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현세회귀성	-				
내세지향성	0.3215	-			
죽음불안	0.0694		-		
죽음관여도			-0.3146	-	
자살억제의지	-0.0983	0.0576		-0.0732	-

$P < 0.05$  인 경우만 제시함.

으면 내세지향성도 높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두 항목 모두 동일한 차원인 내세관을 구성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세관에 포함된 두 항목은 자살억제의지와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현세회귀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억제의지는 낮아지며, 내세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억제의지는 높아진다. 죽음불안은 현세회귀성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죽음관여도는 죽음불안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해 보이는 결과이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내세관(현세회귀성 및 내세지향성)과 자살억제의지 사이의 관계이다. 먼저 현세회귀성과 자살억제의지 간 관계를 살펴보자. 현세회귀성이 높으면 자살억제의지가 낮은 결과는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현세회귀성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견해이며,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세의 삶에 얼마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누미야 요시유키·한성열 2004).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 생명이 연속되고 하늘에서 지상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Douglas(1967)의 연구나, 자살시도 집단에서는 2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Maris(198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내세지향성과 자살억제의지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내세지향성은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

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죽음을 자기소멸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이 관철되는 내세로의 이행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요약하면,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억제의지가 낮은 반면,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억제의지가 강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사실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관관계분석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한편, 현세회귀성이 높아질수록 죽음불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세회귀성을 가지는 사람은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연속성을 상실한다는 불안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한성열 2004). 이와는 반대로 내세지향성을 가지는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완성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와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죽음관여도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한 일관적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다는 연구결과(金兪 1996; Knight et al. 2000)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장휘숙 2000)가 상존한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이를 죽음관여도가 한 차원이 아닌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KGSS가 이 둘을 구별하여 조사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다.

## 2) 성별, 연령별, 종교별 사생관

〈표 3〉은 한국인의 사생관을 5개의 차원별로 제시하고 또한 이를 성별, 연령별, 종교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성, 연령, 종교만 교차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이들 세 변수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도 사생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현세회귀성보다는 내세지향성을 더 믿는다. 현세회귀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동의와 반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정통적 내세관은 점차 쇠퇴하는 추세에 있으나, 인간의 본질인 영성에 뿌리박고 있는 보편적 내세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세지향성이나 현세회귀성에 매우 동의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명, %)

현세회귀성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7	27.18	27.99	36.07	8.77	100
성 별	여 성	26.18	27.62	35.83	10.37	100
	남 성	28.26	28.39	36.33	7.03	100
N=1,597, $\chi^2(3)=5.826$ , sig.=0.120						
연 령	18~34세	20.38	30.36	43.31	5.94	100
	35~49세	27.11	28.23	37.00	7.66	100
	50~64세	34.71	24.84	28.98	11.46	100
	65세 이상	32.40	26.82	25.14	15.64	100
N=1,591, $\chi^2(9)=53.203$ , sig.=0.000						
종 교	불 교	16.37	23.43	47.36	12.85	100
	개신교	45.67	22.57	23.88	7.87	100
	천주교	28.48	29.80	34.44	7.28	100
	종교 없음	22.87	33.54	36.89	6.71	100
	기 타	16.67	25.00	25.00	33.33	100
N=1,597, $\chi^2(12)=134.481$ , sig.=0.000						
내세지향성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5	18.75	32.73	33.17	15.36	100
성 별	여 성	14.73	30.43	35.39	19.44	100
	남 성	23.08	35.20	30.77	10.95	100
N=1,595, $\chi^2(3)=38.803$ , sig.=0.000						
연 령	18~34세	15.29	36.52	36.31	11.89	100
	35~49세	16.48	31.84	36.32	15.36	100
	50~64세	25.48	31.53	24.84	18.15	100
	65세 이상	24.02	27.93	27.93	20.11	100
N=1,589, $\chi^2(9)=37.795$ , sig.=0.000						
종 교	불 교	15.62	32.49	42.07	9.82	100
	개신교	11.81	12.86	33.60	41.73	100
	천주교	18.54	29.80	33.77	17.88	100
	종교 없음	24.46	44.95	27.52	3.06	100
	기 타	33.33	41.67	25.00	0.00	100
N=1,595, $\chi^2(12)=364.512$ , sig.=0.000						
죽음불안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6	20.61	35.28	27.44	16.67	100
성 별	여 성	20.41	36.35	26.81	16.43	100
	남 성	20.83	34.11	28.13	16.93	100
N=1,596, $\chi^2(3)=0.911$ , sig.=0.823						
연 령	18~34세	11.73	25.16	37.95	25.16	100
	35~49세	18.82	37.00	26.95	17.22	100
	50~64세	29.62	44.27	18.15	7.96	100
	65세 이상	35.00	40.56	18.33	6.11	100
N=1,590, $\chi^2(9)=153.308$ , sig.=0.000						

<표 3>

(계속)

죽음불안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종 교	불 교	22.47	36.62	25.51	15.40	100
	개신교	23.62	35.96	25.46	14.96	100
	천주교	17.88	34.44	29.14	18.54	100
	종교 없음	17.99	34.60	29.27	18.14	100
	기 타	41.67	16.67	33.33	8.33	100
N=1,596, $\chi^2(12)=14.116$ , sig.=0.293						
죽음관여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4	22.46	25.09	41.78	10.66	100
성 별	여 성	19.23	23.70	44.26	12.82	100
	남 성	25.95	26.60	39.11	8.34	100
N=1,594, $\chi^2(3)=19.315$ , sig.=0.000						
연 령	18~34세	29.64	25.59	38.59	6.18	100
	35~49세	22.52	27.32	41.85	8.31	100
	50~64세	16.29	24.92	43.45	15.34	100
	65세 이상	13.33	16.11	47.78	22.78	100
N=1,588, $\chi^2(9)=75.895$ , sig.=0.000						
종 교	불 교	21.97	26.77	39.90	11.36	100
	개신교	21.78	21.00	45.14	12.07	100
	천주교	23.33	24.00	41.33	11.33	100
	종교 없음	23.21	26.87	40.92	9.01	100
	기 타	8.33	16.67	50.00	25.00	100
N=1,594, $\chi^2(12)=12.262$ , sig.=0.425						
자살억제의지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5	2.76	5.52	20.94	70.78	100
성 별	여 성	2.17	4.95	21.98	70.89	100
	남 성	3.39	6.13	19.82	70.66	100
N=1,595, $\chi^2(3)=4.025$ , sig.=0.259						
연 령	18~34세	2.55	6.60	23.19	67.66	100
	35~49세	2.08	5.75	19.81	72.36	100
	50~64세	2.88	5.43	24.92	66.77	100
	65세 이상	5.00	1.67	12.78	80.56	100
N=1,589, $\chi^2(9)=24.007$ , sig.=0.004						
종 교	불 교	3.54	5.30	19.95	71.21	100
	개신교	1.84	3.15	19.16	75.85	100
	천주교	1.32	8.61	22.52	67.55	100
	종교 없음	3.21	6.41	21.98	68.40	100
	기 타	0.00	0.00	33.33	66.67	100
N=1,595, $\chi^2(12)=16.440$ , sig.=0.172						

우선 현세회귀성을 살펴보면, ‘죽음과 삶이 반복됨’ 즉 현세회귀성을 믿는 비율(44.83%)이 반대하는 비율(55.17%)보다 더 낮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현세회귀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종교별로 보았을 때 현세회귀성은 불교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고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다. 다음으로 내세지향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감’ 즉 내세지향성에 반대하는 사람들(51.47%)이 찬성하는 사람들(48.53%)보다 약간 더 많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내세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내세지향성에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종교별로 보았을 때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세지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이 천주교 신자, 불교신자, 종교가 없는 사람 순이다.

죽음 불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44.11%)보다 반대하는 사람들(55.89%)이 더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성별 및 종교별 죽음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죽음관여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52.44%)이 반대하는 사람들(47.56%)보다 더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별 죽음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억제의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8.28%로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91.72%)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억제의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성별 및 종교별 자살억제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3. 사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로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현세회귀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현세회귀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다. 둘째,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 비해 불교 신자는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 신자는 현세회귀성이 낮다. 이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교리와의 관련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교의 윤회사상과 기독교에서의 내세관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는 현세회귀성과 관계가 없었다.



〈표 4〉 현세회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현세회귀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139	(.10)	-0.166	(.10)	-0.163	(.10)	-0.161	(.10)
연 령	-0.008	(.00)	-0.010*	(.00)	-0.010*	(.00)	-0.010*	(.00)
불 교			0.653**	(.12)	0.657**	(.12)	0.661**	(.12)
개신교			-0.760**	(.13)	-0.746**	(.13)	-0.757**	(.13)
천주교			-0.162	(.17)	-0.145	(.17)	-0.129	(.17)
행복도					-0.086	(.05)	-0.092	(.05)
사회적 지지							-0.006	(.04)
기 혼	-0.133	(.11)	-0.136	(.12)	-0.121	(.12)	-0.114	(.12)
정규교육년수	-0.006	(.02)	0.014	(.02)	0.015	(.02)	0.016	(.02)
가구소득(log)	-0.023	(.05)	-0.014	(.06)	-0.001	(.06)	0.002	(.06)
근로 (36시간 미만)	-0.379*	(.16)	-0.466**	(.17)	-0.481**	(.17)	-0.482**	(.17)
근로 (36시간 이상)	-0.050	(.11)	-0.155	(.11)	-0.167	(.11)	-0.169	(.11)
/cut1	-1.747	(.40)	-1.674	(.40)	-1.906	(.43)	-1.913	(.44)
/cut2	-0.550	(.39)	-0.407	(.40)	-0.636	(.42)	-0.640	(.44)
/cut3	1.582	(.40)	1.797	(.41)	1.569	(.43)	1.573	(.44)
Log-Likelihood	-1,986.38		-1,936.15		-1,934.87		-1,930.14	
-2LL Chi <sup>2</sup>	17.010*		117.465**		120.015**		122.024**	
N	1,543		1,543		1,543		1,541	
Pseudo R <sup>2</sup>	0.004		0.029		0.030		0.031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표 5〉 내세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내세지향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558**	(.10)	-0.396**	(.10)	-0.401**	(.10)	-0.409**	(.10)
연 령	0.001	(.00)	-0.005	(.00)	-0.005	(.00)	-0.004	(.00)
불 교			0.726**	(.12)	0.722**	(.12)	0.719**	(.12)
개신교			2.018**	(.14)	2.002**	(.14)	1.994**	(.14)
천주교			0.777**	(.17)	0.755**	(.17)	0.770**	(.17)
행복도					0.111*	(.05)	0.104	(.05)
사회적 지지							0.032	(.04)
기 혼	-0.111	(.11)	-0.061	(.12)	-0.082	(.12)	-0.068	(.12)
정규교육년수	0.050**	(.02)	0.026	(.02)	0.025	(.02)	0.026	(.02)
가구소득(log)	-0.004	(.06)	-0.020	(.06)	-0.036	(.06)	-0.035	(.06)
근로 (36시간 미만)	-0.092	(.17)	-0.067	(.17)	-0.049	(.17)	-0.064	(.17)
근로 (36시간 이상)	-0.140	(.11)	-0.056	(.11)	-0.039	(.11)	-0.059	(.11)
/cut1	-1.273	(.40)	-1.235	(.40)	-0.935	(.43)	-0.842	(.44)
/cut2	0.279	(.40)	0.437	(.40)	0.739	(.43)	0.836	(.44)
/cut3	1.965	(.40)	2.380	(.40)	2.688	(.43)	2.787	(.45)
Log-Likelihood	-2,030.27		-1,912.10		-1,910.02		-1,906.83	
-2LL Chi <sup>2</sup>	48.760**		285.107**		289.251**		288.553**	
N	1,541		1,541		1,541		1,539	
Pseudo R <sup>2</sup>	0.012		0.069		0.070		0.070	

1) \*\* p&lt;0.01, \* p&lt;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표 5〉는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내세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내세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세지향성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개신교 신자의 내세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세지향성을 분석한 네 번째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승산비(odds ratio)는

각각  $\exp(1.99)=7.34$ ,  $\exp(0.77)=2.16$ ,  $\exp(0.72)=2.05$ 로 추정된다. 행복감은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세지향성을 증가시켰지만, 사회적 관계가 통제된 후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 모두 무종교인에 비해 내세지향성이 높은 결과와 관련해, 개신교와 천주교는 내세지향성이 교리와 일치하지만 불교에서 내세우는 윤회사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는 불교의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도교 및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임순록 2009). 즉, 불교는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가서 편하게 살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빠져 과보를 받는다는 무속신앙의 내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불교 미술에서 나오는 극락도와 지옥도가 이 같은 해석의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임순록 2009). 2004년 시행된 한국갤럽 조사결과가 보여 준 불교신자 중 윤회사상을 믿는 비율은 36.8%였으며, 아니라는 사람이 40.2%였다는 사실 또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한국갤럽 2004).

한편, <표 4>와 <표 5>에 나타난 개신교가 내세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한데, 개신교는 현세지향성을 감소시키고 내세지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결과는 내세지향성이 개신교 교리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와 관련해 그 특수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전통의 유교 및 무속신앙의 내세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세관은 유교에서의 조상에 대한 숭배, 사자에 대한 인격신적인 의례 의식, 풍수사상에서 죽은 이의 시체를 묻은 장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자손의 길흉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의식 등은 죽음이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외래 종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토속적 내세관과 융합되면서 외래 종교의 내세관 또한 토착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 종교의 교리가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내세관과 융합되면서 한 종교 내에서도 두 내세관이 서로 갈등 없이 동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는 점은 두 내세관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차원이며 서로 융합하여 내세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은 성,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6〉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죽음불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036	(.10)	-0.046	(.10)	-0.046	(.10)	-0.052	(.10)
연 령	-0.036**	(.00)	-0.036**	(.00)	-0.036**	(.00)	-0.036**	(.00)
불 교			0.046	(.12)	0.047	(.12)	0.042	(.12)
개신교			-0.270	(.12)	-0.265	(.12)	-0.264	(.12)
천주교			0.068	(.17)	0.074	(.17)	0.082	(.17)
행복도					-0.032	(.05)	-0.035	(.05)
사회적 지지							0.014	(.04)
기 혼	-0.022	(.11)	-0.022	(.11)	-0.018	(.11)	-0.017	(.11)
정규교육년수	0.026	(.02)	0.030	(.02)	0.030	(.02)	0.030	(.02)
가구소득(log)	0.036	(.05)	0.036	(.05)	0.041	(.05)	0.040	(.05)
근로(36시간 미만)	-0.346*	(.17)	-0.358	(.17)	-0.364	(.17)	-0.375	(.17)
근로(36시간 이상)	-0.020	(.11)	-0.038	(.11)	-0.042	(.11)	-0.051	(.11)
/cut1	-2.540	(.39)	-2.579	(.40)	-2.665	(.42)	-2.631	(.43)
/cut2	-0.825	(.39)	-0.858	(.39)	-0.943	(.42)	-0.908	(.43)
/cut3	0.653	(.39)	0.624	(.39)	0.539	(.42)	0.574	(.43)
Log-Likelihood	-1,994.34		-1,990.69		-1,990.50		-1,989.04	
-2LL Chi <sup>2</sup>	164.344**		171.648**		172.015**		168.651**	
N	1,542		1,542		1,542		1,540	
Pseudo R <sup>2</sup>	0.040		0.041		0.041		0.041	

1) \*\* p&lt;0.01, \* p&lt;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첫째,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불안은 감소한다. 둘째,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없음/기타 집단에 비해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늙어감에 따라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대해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나 감정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개신교 신자일수록 죽음불안이 낮았는데, 이는 개신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개신교의 사후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 현생보다는 내세에서 영생(永生)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죽음을 절대자의 완벽한 사랑에 귀의하는 과정으로 보는 교리가 죽음불안

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기홍 2009; 최학유 1996). 즉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죽음불안은 약화되고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는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표 7〉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죽음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죽음관여도는 남성들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죽음관여도가 낮은 것은 〈표 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내세지향성이 낮은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에 대해

〈표 7〉 죽음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죽음관여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성	-0.361**	(.10)	-0.354**	(.10)	-0.354**	(.10)	-0.335**	(.10)
연령	0.022**	(.00)	0.022**	(.00)	0.022**	(.00)	0.021**	(.00)
불교			-0.176	(.12)	-0.170	(.12)	-0.153	(.12)
개신교			0.154	(.12)	0.186	(.12)	0.189	(.12)
천주교			0.029	(.17)	0.058	(.17)	0.078	(.17)
행복도					-0.173**	(.05)	-0.173**	(.05)
사회적 지지							-0.089*	(.04)
기혼	-0.199	(.12)	-0.198	(.12)	-0.170	(.12)	-0.190	(.12)
정규교육년수	-0.009	(.02)	-0.014	(.02)	-0.012	(.02)	-0.011	(.02)
가구소득(log)	-0.088	(.05)	-0.089	(.05)	-0.068	(.05)	-0.060	(.05)
근로(36시간미만)	0.308	(.17)	0.326	(.17)	0.300	(.17)	0.347*	(.17)
근로(36시간이상)	-0.027	(.11)	-0.008	(.11)	-0.031	(.11)	0.015	(.11)
/cut1	-1.246	(.39)	-1.278	(.39)	-1.757	(.42)	-1.975	(.43)
/cut2	-0.057	(.39)	-0.086	(.39)	-0.557	(.42)	-0.771	(.43)
/cut3	2.259	(.40)	2.239	(.40)	1.776	(.42)	1.566	(.43)
Log-Likelihood	-1,936.68		-1,933.79		-1,928.71		-1,924.23	
-2LL Chi <sup>2</sup>	86.391**		92.167**		102.331**		105.024**	
N	1,540		1,540		1,540		1,538	
Pseudo R <sup>2</sup>	0.022		0.023		0.026		0.027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생각하는 정도나 횟수가 더 많고 현세보다는 사후세계를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세보다는 현세 지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황명진·심수진 2008). 둘째,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수록 죽음관여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행복하게 느낄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죽음관여도와 종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8〉 자살억제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살억제지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성	-0.036	(.12)	-0.022	(.12)	-0.018	(.12)	-0.026	(.12)
연령	0.012*	(.00)	0.012*	(.00)	0.014**	(.01)	0.014**	(.01)
불교			0.036	(.14)	0.026	(.15)	0.018	(.15)
개신교			0.297*	(.15)	0.211	(.15)	0.218	(.15)
천주교			-0.169	(.19)	-0.259	(.20)	-0.277	(.20)
행복도					0.430**	(.07)	0.435**	(.07)
사회적 지지							0.025	(.05)
기혼	0.240	(.13)	0.240	(.13)	0.176	(.14)	0.173	(.14)
정규교육년수	0.028	(.02)	0.026	(.02)	0.022	(.02)	0.021	(.02)
가구소득(log)	0.066	(.06)	0.064	(.06)	0.013	(.06)	0.009	(.06)
근로(36시간미만)	-0.050	(.20)	-0.041	(.20)	0.024	(.20)	0.015	(.20)
근로(36시간이상)	-0.069	(.13)	-0.058	(.13)	-0.006	(.13)	-0.014	(.13)
/cut1	-2.260	(.48)	-2.229	(.48)	-1.094	(.52)	-1.039	(.53)
/cut2	-1.136	(.47)	-1.104	(.47)	0.039	(.51)	0.094	(.52)
/cut3	0.430	(.46)	0.467	(.46)	1.644	(.51)	1.697	(.52)
Log-Likelihood	-1,256.91		-1,253.81		-1,231.74		-1,229.17	
-2LL Chi <sup>2</sup>	18.449*		24.642**		68.786**		70.120**	
N	1,541		1,541		1,541		1,539	
Pseudo R <sup>2</sup>	0.007		0.010		0.027		0.028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표 8〉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자살억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억제의지가 높다. 둘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자살억제의지가 높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자살억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죽음관여도와 마찬가지로 자살억제의지도 연령과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가 연령과 행복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노인의 외로움, 우울증,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신영 2010; 정병은·이기홍 2010).

####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생관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생관을 구성하는 현세회귀성, 내세지향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각 변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종교에 따른 사생관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사생관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영향력이 존재할 것으로 포함된 변인들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 사회적 관계 등이며,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근로시간 등은 모든 모형에 통제변수로 다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내세지향성과 죽음관여도가 높았다. 둘째, 연령은 현세회귀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등 내세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사생관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은 낮아지는 반면,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는 높아진다. 셋째, 한국인의 사생관의 형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낮았다. 내세지향성과 관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내세지향성을 보였다.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세지향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월등히 높은 죽

음불안 수준도 가지고 있었다.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는 종교와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는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행복하다고 자주 느끼고 풍부한 사회적 연결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살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변수측정의 한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관의 각 차원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단일문항을 이용한 측정보다는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될 때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Mirowsky & Ross 2002). 본 연구가 사생관 척도로 차용하였던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에서의 사생관 척도는 각 사생관 차원에 대해 복수의 문항으로 만들어져 타당화된 척도인데 반해, 본 연구는 각 사생관 차원에서 하나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단일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사생관의 각 차원간의 인과적 및 복합적 관계는 살펴볼 수 없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생관의 각 차원에 대해 복수의 문항을 이용해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가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생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문항을 차용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의 사생관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가 횡단연구로부터 산출되었다는 한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횡단연구 자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간순서가 종단연구에 비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즉, 죽음에 대한 인식, 감정, 태도 등이 순서대로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반대로 죽음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사생관 수준과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가 사생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종교별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향후 죽음이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당화된 도구의 개발을 통한, 사생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혜진. 1980.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 의·간호계 종사자 및 학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0(2): 21-40.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태련. 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미국 나성 교포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 30-47.
- 박영호·윤주필·설성경·이종은·정민·금응환. 1997. “한국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사생관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0: 7-246.
- 박중환. 1979. “한국장례의식의 정신분석적 고찰.” 《최신의학》 22(7): 79-86.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안준희·전미애. 2009.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소질 모델(Stress-diathesi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 489-511.
- 이기재·김영원·박진우·김설희·박은영. 2006. “보고통계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의 개발.” 《조사연구》 7(1): 85-107.
- 이혜용·이인경. 2010.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1(1): 161-176.
- 신광철. 2006. “한일 양국의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생관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장례식 소재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43: 21-43.
- 이기홍. 2009.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조사연구》 10(3): 131-156.
- 이누미야요시유키. 2005. “청년기의 생명윤리와 사생관.” 《한국심리학회》 19: 85-108.
- 이누미야요시유키·최일호·한성열. 2001. “한국인(韓國人)의 내세관(來世觀)에 관한 探索的 研究.” 《한국심리학회》 15(1): 77-96.
- 이누미야요시유키·한성열. 2004. “사생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10: 31-82.
- 임순록. 2008. “한일 사생관(死生觀) 비교 - 유교(儒敎)와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 《일본근대학연구》 19: 241-251.
- 임순록. 2009. “한일 사생관(死生觀) 비교 - 불교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2: 417-433.
- 장휘숙. 2000.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127-143.

- 정병은·이기홍. 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2): 45-69.
- 최길성. 1986.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 최인·김영숙·서경현. 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책공방.
-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최학유. 1996. “기독교인의 죽음의식.” 《인문과학연구》 55-78.
- 池口惠觀. 1998. 臓器移植に關する日本人の意識構造(第1報): 死生觀を構成する背景要因について. 民族衛生 64(3): 161-182.
- 今井孝太郎. 1989. 「死」の心理學的考察. 龍谷大學論集 434:435: 59-72.
- 金兒曉嗣. 1994. 大學生とその兩親の死の不安と死觀. 人文研究(大阪市立大學イ文學部紀要) 46: 537-564.
- 金兒曉嗣. 1996. 來世觀と死觀の構造: 尺度の作成と信賴性·妥當性の検討. 金兒曉嗣(代表)「來世信仰は死の不安を和らげるか?」平成5-6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 C) 研究成果報告書 29-66.
- 金兒曉嗣. 1997. 日本人の宗教性. 東京: 新曜社
- 河野由美. 1998. 看護婦の死生觀, 宗教觀と死の不安の計量的研究. 第29回 日本看護學會論文集: 看護綜合 88-90.
- 丹下智香子. 1995. 死生觀の展開.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教育心理學科 42: 149-156.
- 丹下智香子. 1999. 青年期における死に對する態度尺度の構成および妥當性·信賴性の検討. 心理學研究 70(4): 327-332.
- Baumeister, R.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Cicirelli, V.G. 1998. “Personal Meanings of Death in Relation to Fear of Death.” *Death Suicide* 22(8): 713-733.
- Collet, L. and D. Lester. 1996.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 of Suic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ifel, H. 1990. “Psychology and Death: Meaningful Rediscovery.” *American Psychologist* 45(4): 537-543.
- Kaplan, I. Harold, J. Benjamin, M.D. Sadock, A. Jack, and M.D. Grebb. 2007.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 Clinical Psychiatry*.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 Knight, K.H., M.H. Efenbein, and L. Capozzi. 2000. "Relationship of Recollections of First Death Experience to Current Death Attitudes." *Death Studies* 24: 201–221.
- Maris, R. 1981. *Pathway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rowsky, J. and C.E. Ross. 2002. "Measurement for a Human Sci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52–170.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OECD Social Indicators: Key Findings for Korea."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dataoecd/30/9/42710340.pdf>
- Osarchuk, M. and S. Tatz. 1973. "Effect of Induced Fear of Death on Belief in After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2): 256–260.
- Spika, B., L. Stout, B. Minton, and D. Sizemore. 1977. "Death and Personal Faith: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of Religion* 16: 139–178.
- Thalbourne, M.A. 1996. "Belief in Life after Death: Psychological Origins and Infl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1043–1045.
- Wong, P.T.P., G.T. Reker, and G. Gesser.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Band 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 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접수 2010/10/18, 1차 수정 2011/6/10, 2차 수정 2011/7/9,  
 게재확정 2011/7/18>